

二. 牙山市 篇

1. 調査地域 概観

가. 아산시의 위치 및 개요

아산시(牙山市)는 충청남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42.48km², 인구는 20여만명, 가구수는 65,000여 가구이다. 동경 126°28'~127°07', 북위 북위 36°37'~36°38'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간 연장거리 29km, 남북간 연장거리 34km이다. 첨단 산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광역아산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동쪽은 천안시, 서쪽은 당진군, 남쪽은 예산군·공주시, 북쪽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접한다. 행정구역은 1읍 10면 6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지나 높은 산지를 형성하는데, 오랜 침식을 받아 잔구성(殘丘性)의 노년기 지형을 이룬다. 군의 중앙에는 영인산(364m)이 있으며, 남부는 광덕산(699m)·망경산(600m)·봉수산(534m)·설화산(441m)·배방산(361m) 등이 있으며, 북부에는 고용산(294m)·연암산(293m) 등이 있다. 대부분 화강암이 침식된 저산성 구릉이다.

북서부에는 아산만이 내륙 깊숙이 휘어 들어와 있고, 아산만으로 유입하는 삽교천과 안성천의 하구에 삽교호와 아산호가 있다. 화강암류와 편마암류가 주종을 이룬다. 화강암류는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변성암인 호상편마암은 주로 아산구릉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곡교천 유역과 아산만에 면한 일부지역에는 충적층이 나타난다.

서해로는 아산만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으로 봉강천, 서로는 삽교천, 중앙으로는 곡교천 등 그 유역을 따라 기름진 옥토와 국내 유수의 온천수 등이 분포되어 있다. 농촌과 어촌을 동시에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서해안 지역발전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아산항 종합개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현충사·도고온천·아산온천·광덕산·삽교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으로 지목받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12℃ 내외이고, 1월 평균기온 -2.1℃, 8월 평균기온 24.9℃이다. 연강수량은 1,000~1,100mm로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강수량을 보인다.

나. 아산시의 역사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염로국 지역이었다. 아산이란 백제시대의 지명 아술에서 변화된 이름이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음봉현이라 개칭하여 당정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는 인주라고 개칭하고 1018년(현종 9)에는 천안부에 속하였다가 후에 아주라고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온수군·인주현·신창현으로 조선시대에는 온양군·아산현·신창현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아산현으로 개칭하였고 1459년(세조 5)에 이르러 아산현을 온양군·신창군·평택현 등에 분속하였다가 1464년 아산현으로 복구하였다. 1895년(고종 32)에는 홍주목 소속 온양군·아산군·신창군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군면통폐합시 온양·아산·신창의 3개 군을 통합하여 아산군이라고 칭하고 12개 면을 두었다. 1941년 온양면이 온양읍으로 승격하고, 1986년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하여 군에서 분리되었다.

1987년 배방면 공수리 일부가 온양시로 편입하였고, 탕정면 구령리가 배방면에 편입하였다. 1989년 신동 일부가 온양시에 편입, 염치면 석정리 일부가 온양시로 편입하였다. 1990년 염치면을 염치읍으로 승격하였다.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다시 합쳐 도농복합형의 아산시가 되었다.

2004년 현재 염치읍 및 송악·배방·탕정·음봉·둔포·영인·인주·선장·도고·신창면, 온천1~2·권곡·신정·용화·온주동 등 1읍 10면 6동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다. 아산시의 산업

낮은 구릉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기후가 온화하며 수리시설이 잘 정비되어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다. 농업가구는 1만 2800여가구, 농업인구는 4만 40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면적의 약 41%가 경지이며, 총경지면적은 2만 2,143ha, 논 1만 5,402ha, 밭 6,741ha이다.

농작물은 쌀·배추·무·마늘·양배추·고추·당근·과 등의 채소류와 수박 등 과일, 사료용 옥수수이다. 남부의 구릉성 산지에서는 과실류인 배·복숭아·사과·포도·밤 등이 다량으로 산출된다.

2000년도 현재 식량작물 생산량은 미곡 7만 4,212t, 맥류 256t, 잡곡 115t, 두류 900t, 서류 2,324t으로 미곡이 주종을 이룬다. 축산은 소·돼지·닭·사슴 등의 사육이 활발하다. 2000년도 축산사육 현황은 한우 1만 1,149마리, 젓소 1만 4,031마리, 돼지 10만 6,144마리, 닭 171만 3,234마리, 사슴 3,610마리, 오리 3만 2,685마리로 집계되었다. 특산물로는 표고버섯이 유명하다.

아산만방조제와 삽교천방조제 축조 이전에는 아산만 연안에서 어업·제염 등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아산호와 아산만이 맞닿아 있는 인주면에서 선만 어업이 행해진다.

공업은 인주공업단지 조성으로 최근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인주면·배방면을 중심으로 면사·면방직 등 섬유공업, 펄프 및 제지공업, 식품가공·도자기·전자·석재·화학공업이 이루어진다. 2000년 말 현재 제조업체수는 676개로 3만 275명의 종업원이 있다.

탕정·둔포·영인·신창·배미·신인·득산 등 7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총 5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272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제2공구에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연간 30만 대 생산규모로 울산에 이은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라. 아산시의 교통관광

장항선이 시의 중앙을 동서로 횡단하며, 천안~장항 간 국도가 철도와 거의 평행하게 횡단하고, 공주~유구~아산 간 국도가 시를 남북으로 관통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되었고 경부고속전철이 아산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한층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다.

온천관광지로 이름난 곳으로 도고온천·온양온천·아산온천이 있으며, 이충무공의 사당인 현충사와 음봉면의 이충무공묘, 아산향교와 토정 이지함공적비, 아산만방조제, 신정호 국민관광지, 봉곡사, 온양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명산으로는 광덕산(699m)·설화산(441m)·영인산휴양림 등이 있다. 또한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 있는 광덕산 내의 계곡인 강당골은 일명 양화담이라 고도 하는데, 물이 맑고 계곡의

주변은 울창한 노목이 숲을 이루고 있어 심산유곡의 정취를 맛볼 수 있으며 개울바닥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물과 숲과 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으로 도시생활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이다. 휴식공간과 놀이배가 있고 낚시터로 유명한 신정호유원지와 충무유원지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문화재는 2001년 현재 국보 1점, 보물 8점, 사적 3점, 중요민속자료 25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37점과 유형문화재 2점, 무형문화재 1점, 기념물 6점, 민속자료 3점 등 지방지정문화재 12점, 문화재자료 22점이 있다.

현충사에 있는 이충무공 난중일기부 서간첩 임진장초(국보 76)를 비롯해 불교 문화재로는 읍내동 당간지주, 온천동 석불 등이 있고, 유교 문화재로는 아산향교가 있으며, 김옥균 선생 묘도 이곳에 있다.

마. 아산시의 사회·문화

전통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 아산향교와 신창향교가 세워졌다. 서원으로는 배방면 중리의 정퇴서원, 염치읍 서원리의 인산서원, 도고면 도산리의 도산서원, 송악면 강당리의 외암서원 등이 있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10년 신창면에 설립된 신창공립보통학교가 최초이다. 1911년 영인면에 아산공립보통학교가 개교, 1949년 영인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1917년 둔포면에 둔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1951년 둔포면에 둔포중학교가 설립되었다. 1978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신창면에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 1980년 순천향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가 1989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다.

2001년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순천향대학교·호서대학교·선문대학교 등이 있고, 초등학교 35개교(분교 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다. 교육보조시설로는 충무교육원이 있고, 공공도서관 3개소, 공연장 1개소, 미술관 1개소, 유선방송사 2개소, 주간신문사 5개소가 있다. 온양문화원은 온양문화제를 주관하며 온양문화원 부설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 설치 및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행사로는 해마다 10월 설화예술제, 4월 온양문화제 등이 열린다. 온양문화제는 이충무공 탄신기념일(4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4월 28일을 전후로 3~4일간 열리며 연날리기·줄다리기 등 민속행사, 문화예술행사, 각종 이벤트 행사 등 50여 종목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의 화합과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바. 아산시 읍면별 지역개관

1) 도고면(道高面)

도고면은 본래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남상면과 대서면의 일부와 예산군 금평면과 신흥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이 지방의 유명한 도고산의 이름을 따서 도고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7년 충청남도령 제8호로 신성리를 선장면에 넘겨주고 면사무소를 향산리 용호원에서 선장역이 있는 신언리로 옮겼다. 현재 아산군이 아산시로 개편되었는데 신언리, 봉농리, 효자리, 금산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농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향산리, 와산리, 신통리, 기곡리 등 16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도고면은 아산시 서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신창면과 송악면에, 남쪽은 예산군 대술면에 접해 있고, 서쪽은 도고산을 경계로 예산군 예산읍이 있으며, 북쪽은 신장면과 서로 접하고 있다. 대개 면의 동남쪽은 산지이고 서북쪽은 야산과 구릉이 많은 저지대이다. 장항선 철도의 도고온천역이 면소재지인 신언리에 위치하고 천안에서 군산에 이르는 국도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신언리에서 농은리를 경유하여 예산군 대술면에 이르는 군도가 있다.

도고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도산리에는 도산서원(道山書院)이 있었다. 정위(正位)에는 포저 조의 문효공(浦渚 趙翼 文孝公)을 모시고, 포저의 제자인 치곡 조극선(治谷 趙克善)을 배향하였다. 도산리는 포저선생이 광해군 정란 때에 퇴거하던 곳이다. 날마다 제자와 더불어 도의를 갈고 닦고 나라일을 걱정했다. 제자인 치곡이 죽은 후 전국 사림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 도고산 서원을 창건하고 두 분을 봉안하고 수백 년을 섬겨오다가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

2) 둔포면(屯浦面)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으로서 둔포(屯浦), 도곡, 석교(石橋), 시포(市浦), 신흥(新興), 남창(南倉), 명포(命浦), 냉정(冷井), 신리(新里), 법고(法古), 신포(新浦), 상왕(上旺), 중왕(中旺), 하왕(下旺), 신선실(新宣實), 방교(芳橋), 팔룡(八龍), 상념(上念), 하념(下念)의 20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일북면의 백양동(白楊洞)과 전 천안군 모산면의 관대(館垔), 흑천(黑川), 가리(加里), 장재(長在), 봉오(蜂五), 죽대(竹垔), 봉림(鳳林), 산직(山直), 합산(蛤山), 송산(松山), 부용(芙蓉), 시포(市浦), 신대(新垔), 당후(堂后), 어인(於仁), 문성(文城), 항각(項角), 신촌(新村)의 18개리를 병합하여 해운(海運)이 성한 둔포의 이름을 따서 둔포면이라 하여 아산군(현재는 아산시로 개편)에 편입되었으며 관대, 둔포, 봉재(鳳在), 산전(山田), 석곡(石谷), 송용(松蓉), 시포, 신남(新南), 신양(新陽), 신법(新法), 신왕(新旺), 신항(新項), 염작(念作), 운교(雲橋), 운룡(雲龍)의 15개리로 개편·관할하고 있다. 동쪽은 천안시, 남쪽은 음봉면, 서쪽은 영인면, 북쪽은 경기도 평택군에 닿아 있다.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와 37개 행정리, 41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둔포면의 면적은 41,277,154.3㎡로 아산시에서 8번째 넓이이며, 인구는 11,000여 명이고 세대수는 2,400여 세대이다.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논이 16,229,755.4㎡, 밭이 6,582,957㎡, 과수원이 2,970,620.7㎡, 목장이 373,901㎡, 임야가 8,071,993㎡, 공장용지 784,000㎡, 도로 1,404,205㎡, 하천 700,608㎡ 등이다.

대표적인 하천인 둔포천은 거무내와 왕지천이 둔포리에서 합하여 둔포면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과 경계를 이루고 안성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대표적인 산지 월주산성(月柱山城)은 둔포면 봉재리와 음봉면 신정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돌로 쌓은 성 220간이 있으며, 어리목산성과 남북으로 마주 서있다.

둔포면에 있는 문화재로는 신항리에 있는 국가 지정 민속자료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와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 제12호인 윤일선 가옥, 제13호인 윤제형 가옥, 제15호인 윤승구 가옥이 있다.

3) 배방면(拜芳面)

본래 온양군 동상면(東上面)의 지역으로서 갈매(葛梅), 자우(雌牛), 이천(二川), 창대(倉垔), 월천(月川), 북수(北水), 초산(草山), 의식(衣食), 세출(世出), 무학(舞鶴), 서수(西水), 갈동(葛洞), 오산(烏山), 공수(公須), 회룡(回龍), 탑리(塔里),오리(梧里)의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구면 폐합에 따라 동하면(東下面)의 세교(細橋), 상성(上星), 송성(松城), 운성(雲城), 사오개(沙五介), 장재(長在), 송곡(松谷), 소연(小蓮), 연동(蓮洞), 휴대(休垔), 정산(定山)의 11개 리와 군내면(郡內面)의 남리(南里), 일현(日軒), 신대, 매곡, 상촌(上村), 곡촌(曲村), 명막(明幕), 수철(水鐵), 신흥, 은곡(隱谷), 송현(松峴), 감탁(甘卓), 서원(書院), 흑암(黑岩), 중리(中里), 하리(下里)의 16개 리와 이북면의 판교(板橋), 오류동 일부, 모산리와 천안군 군서면의 송곡을 병합하여 이 지방에 있는 배방산의 이름을 따서 배방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갈매, 공수, 남리, 북수, 세교, 세출, 수철, 신흥, 장재, 중리, 회룡, 휴대의 12개 리로 개편·관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은 12개 법정리와 41개의 행정리로 되어 있다. 동쪽은 천안시와 천안시 풍세면, 남쪽은 천안시 풍세면과 광덕면, 서쪽은 송악면과 온양, 북쪽은 탕정면과 천안시에 닿아 있다.

배방면의 대표적인 산은 다음과 같다.

- ① 배방산(拜芳山) : 배방면 중앙에 높이 솟은 산으로 높이는 316 미터이며, 네 봉우리가 함께 솟아 있고, 그 위에 돌로 성 760간을 쌓았는데, 모양이 기러기가 지나가는 형국이라 한다.
- ② 북부성(伏釜城) : 배방면 공수리, 남리, 신흥리에 걸쳐 있는 산성으로 높이는 약 100미터 정도이다.
- ③ 설화산(雪華山) : 온양 온천에서 동남쪽 4.5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사화산으로 높이는 441미터이다. 산정은 매우 뾰족하며 북쪽에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금광이 산재해 있었으나 지금은 폐광이 되었고, 그 대신 양질의 화강암이 산출되어 일본 등지에 석재를 수출하고 있다.
- ④ 망경산(望京山) : 배방면 수철리에 위치하여 광덕산 북쪽의 산이다. 높이는 601미터나 되며 산정에서 서울의 산들이 보인다고 해서 망경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배방면의 대표적인 하천은 다음과 같다.

- ① 쇠일내(金谷川) : 배방면 수철리 망경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쇠일을 지나 좌부리에서 온양천으로 들어가는 내이다.
- ② 곡교천 : 천안시 광덕면 갈재고개 부근에서 발원하여 광덕산, 망경산 등의 남쪽 사면의 물을 합쳐 동북류하는 풍세천과 천안시 봉서산 부근에서 발원하는 웅천이 풍세면 둔암리에서 합류하여 곡교천을 이루어 흐른다. 배방면 갈매리에서 유로가 서쪽으로 변경되어 다시 천안천, 매곡천, 용두천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① 설화암(雪華庵) : 배방면 중리 산 53번지 설화산 중턱에 있다. 1972년도에 건립되었으며 조선식 기와지붕 1동, 또 다른 1동으로 되어 있고, 석가모니 아미타불상을 안치하였다.
- ② 정퇴서원(靜退書院) : 배방면 중리 부근 정퇴동에 있었던 서원이다. 인조 12년에 많은 선비들이 땅 이름이 정퇴이므로 조정암(趙靜庵)과 퇴계 두 선생의 머리 글자와 같아서

여기에 서원을 짓고 정암, 퇴계 두 선생과 여러 고을의 선현들을 모셨다고 한다.

- ③ 자은영당(自隱影堂) : 배방면 세교리에 있는 이 영당은 승려 의정 만퇴당, 정익공 홍만조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 ④ 구괴정(九槐亭) : 아산군 배방면 중리에 있는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 정자를 구괴정이라 한다. 영상 황희, 우상 경암 허형, 좌상 고불 맹사성 등 삼상이 각기 세 그루씩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커서 성음이 된 후 삼정승이 모여 앉아 상유담론하였다고 해서 삼상당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만 쓸쓸히 서 있어 옛 일을 회상할 수 있다. 학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연구자료로 삼는다.

4) 선장면

선장면은 원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북면의 일부와 진천안군 돈의면, 덕흥면의 일부, 예산군 신중면, 금평면의 일부, 면천군 일부, 아산군 이서면, 삼서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이이곳에 있는 초정의 이름을 따서 초정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군덕리, 돈포리, 신덕리, 대정리, 장곶리, 죽산리, 신동리, 선창리, 대흥리, 흥곶리, 가산리, 신문리, 궁평리 등 14개 리로 개편·관할하고 같은 해에 면사무소를 군덕리에 두었으며, 1917년 충청남도령 제8호로써 선장포의 이름을 따라 선장면이라 고치는 동시에 도고면의 신성리를 편입하여 15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행정구역은 31개의 행정리와 14개의 법정리로 되어 있다. 선장면은 동쪽으로는 신창면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삼교천을 경계로 예산군 함덕읍과 우강면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도고면과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고분다리천을 경계로 인주면과 접해 있다.

선장면은 대부분의 면적이 하천유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수리가 양호하여 논농사 재배에 적당한 평야로서 많은 수확량을 올려 곡창지대로 칭송을 받고 있다.

5) 송악면

송악면은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남상면과 신창군 남하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송악산의 이름을 따서 송악면으로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었다가 현재 아산시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면으로서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장곡리, 궁평리, 유곡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강장리, 수곡리, 동화리 등 13개리로 개편·관할하고 있다. 즉 송악면의 행정구역은 13개 법정리, 26개 행정리, 56개 자연부락으로 나뉜다.

송악면은 아산시 최남단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광덕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천안시 광덕면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공주시 유구면, 서쪽으로는 예산군 대술면 및 아산시 도고면과, 북쪽으로는 아산시 장줄리와 경계를 이루고 아산시 중 산간부에 위치하고 있다.

송악면의 면적은 61.19km²로 아산시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는 4,440여 명으로 가장 적다. 세대수도 1,320여 세대 정도로 가장 적다. 토지 지목별 현황은 밭 3,664,294m², 논 6,033,881m², 과수원 1,163m², 목장용지 226,644m², 임야 46,194,647m², 하천 1,606,913m² 등이다. 가축 사육 가구는 총 270여 가구이며 한우·젖소·돼지·사슴 등을 사육하는데 한우 사육 가구가 60%, 사슴 사육 가구가 30%를 차지한다. 온천 지역인 온양이 가까워서 그 런지 숙박업소가 전혀 없다.

송악면 강당리는 광덕산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데 수목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물과 기암괴석으로 이름이 높다. 이곳에는 조선 숙종 때 경연관을 지낸 외암(巍巖) 이간(李柬)선생이 짓고 유학을 강론하던 관선재(觀善齋)가 있으며 이곳에 외암문집 목판각 303매가 보관되어 있다. 관선재를 수호하기 위하여 승려를 뒀으로써 자연 불사를 하게 되어 강당사(講堂寺)라 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암리는 1978년에 충청남도 민속보존마을로 지정된 마을이다. 이 마을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약 500여 년 전부터 姜氏와 陸氏 등이 처음 이곳에 정착한 이래 점차 취락을 형성하여 오다가 약 400여 년 전에 예안 이씨(禮安 李氏) 일가가 이 마을에 이주하여 계속 후손들이 번창, 문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반가(班家)의 고택이 잔존하게 되었다. 현재의 외암리(外岩里)란 마을 명칭은 원래 설화산의 '우뚝 솟은 바위'란 뜻의 '巍巖'으로 쓴 것인데,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外岩里'라 쓴다고 전해오고 있다.

송악면 소재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536호인 약사여래입상(평촌리)과 민속자료 제195호 외암삼판택(외암리)이 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로는 무형문화재 제11호 아산 연엽주(외암리)와 문화재 자료 제242호 봉곡사 불화(유곡리), 제 323호 봉곡사 대웅전(유곡리), 제 333호 외암선생 문헌판각(외암리), 전통사찰로는 제51호 봉곡사(유곡리)가 있다

6) 신창면

신창면은 본래 신창군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대동면, 소동면, 대서면, 소서면, 북면의 일부와 아산군 삼서면, 대동면의 일부 그리고 온양군 서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학성산의 이름을 따서 학성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오목리, 읍내리, 창암리, 황산리, 행목리, 점량리, 득산리, 실옥리, 수장리, 신달리, 남성리, 궁화리, 가덕리, 신곡리, 가내리 등 15개 리로 개편·관할하였는데 1917년에 오목리가 장항선의 역으로서 급히 발전됨에 따라 면사무소를 읍내리에서 옮기는 동시에 충청남도령 제8호로서 면의 이름을 신창면이라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창면은 아산시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온양, 남쪽은 온양과 송악면과 도고면, 서쪽은 도고면과 선장면, 북쪽은 인주면과 염치면에 접해 있다.

신창면의 인구는 총 11,200여 명으로 3,545 세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신창면의 면적은 39.85km²이다.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밭 7,524,667m², 논 12,733,969m², 과수원 802,179m², 목장 61,657m², 임야 11,548,925m²이다. 가축 사육 가구는 총 260여 가구로서 한우·젓소·돼지·사슴 등을 사육하는데 한우 사육가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신창면의 문화재는 도지정 문화재 5점이 있다. 도지정 문화재 제225호인 신창향교(읍내리), 제235호인 인취사 석탑(읍내리), 제236호인 신창 척화비(읍내리), 제237호인 김육비(읍내리), 제244호인 신창학성(읍내리) 등이다.

산으로는 해발 183미터의 학성산과 132미터의 치악산이 있고, 하천으로는 학성산에서 발원하여 궁화리, 가덕리 등을 관류하여 곡교천에 합류,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과 동부에서 발원하여 읍내리, 오목리, 가덕리를 관통하여 곡교천과 합류되는 하천이 있는데, 그 연변에는 쌀, 보리, 콩 등의 경작에 적당한 비옥한 평야가 있고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다.

교통은 천안을 기점으로 하는 장항선이 면 동서부를 관통하고 천안에서 장항에 이르는 국도

는 온양온천을 경유하여 득산리, 남성리, 읍내리를 거쳐 지나고 있어 충남 교통의 맥을 이루고 있다.

7) 염치읍

본래 아산군(牙山郡) 근남면(近南面)의 지역으로서 신중(新中), 곡교(谷橋), 학대(鶴堡), 상독(上獨), 하독(下獨), 독동(獨東), 방수(芳水), 장현(獐峴), 금곡(金谷), 가곡(佳谷), 호동(壺洞), 상죽(上竹), 중죽(中竹), 하죽(下竹), 두미(斗尾), 석서(石西), 석중(石中), 석동(石東), 내송(內松), 외송(外松), 권곡(權谷), 염치(鹽峙), 성산(星山)의 23개리를 관할하다가 1911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원남면의 대동(大洞), 대서(大西), 대중(大中), 백암(白岩)의 4개리를 병합하여 아산군 남쪽에 있으므로 아남면이라 하고, 1914년 다시 아산군 삼서면(三西面)의 강청상리(江淸上里), 강청하리(江淸下里), 형제동(兄弟洞), 생양(生陽), 남산(南山), 와천(瓦川), 중방(中芳), 신포(新浦)의 8개리와 온양군(溫陽郡) 일북면(一北面)의 청원동(靑院洞)과 이북면(二北面)의 소정(小亭), 백암, 구미동(九美洞)일부와 서면의 실옥리(實玉里) 일부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염치의 이름을 따서 염치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강청, 곡교, 대동, 동정(東亭), 방현(芳峴), 백암, 산양(山陽), 쌍죽(雙竹), 서원(書院), 석두(石斗), 석정(石亭), 송곡(松谷), 염성(鹽星), 중방(中方)의 14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90년 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은 14개 법정리, 26개 행정리, 40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은 탕정면(湯井面), 남쪽은 온양읍(溫陽邑)과 신창면(新昌面), 서쪽은 인주면(仁州面), 북쪽은 영인면(靈仁面)과 음봉면(陰峰面)에 각각 닿아 있다.

염치읍의 면적은 42.19km²로 아산시에서 일곱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7,600여 명으로 7,600여 세대를 이루고 있다. 토목 지목별 현황을 보면, 밭 4,315,764m², 논 9,504,867m², 가수원 87,033m², 임야 21,414,244m², 하천 2,110,978m²이다. 가축 사육 가구는 총 270여 가구로서 한우·젓소·돼지·사슴 등을 사육하는데 한우 가축 가구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산지(山地)로는 동림산(桐林山), 동량산(東梁山), 방화산(芳華山) 등이 있다. 동림산은 강청리와 서원리 어름에 있는 산으로 영인면의 남쪽 줄기가 되며, 높이는 265미터이다. 꼭대기에 거북 모양의 큰 바위가 있어서 7~8명이 앉을 만하고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데, 바위에 엮혀 있어서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몇 사람이 흔들어도 똑같이 흔들린다고 한다. 동량산은 영인산 남쪽 곧 산양리 일대에 있는 산이고, 방화산은 백암리 현충사 뒤에 있는 산으로 흙과 돌로 쌓은 성 220칸이 있으며 중턱에 샘이 있어서 정성을 드러 아들 낳기를 빌면 영험이 있다하여 정자천(定子泉)이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건축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충사(顯忠祠)는 백암리 방화산 기슭에 위치한 현충사는 숙종 30년(1704)에 아산 유생들의 상소로 조정의 허락을 받아 1706년에 건립하였고 그 이듬해 숙종께서 친히 현충사라 사액(賜額)한 사당이다. 당초에는 이순신 외에 두 위(位)가 더 있었으나 1932년 이충무공만을 모신 현충사를 건립하였다. 이충무공고택(李忠武公古宅)은 백암리 현충사경내에 있으며 고택은 이충무공께서 사시던 집으로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에 건축된 주택이다. 송과당(松坡堂)은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에 있었는데 처사(處士) 이덕민(李德敏)이 거처하던 곳으로 뜰 앞에 대나무를 심어 자연이 울창하고 나무들이 무성하여 경관이 좋았다고 한다. 만전당(晩全堂)은 대동리에 있는데 판서 홍가신(洪可臣)이 축조하여 항시 거처하던 곳이다.

염치읍의 문화재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76호인 이충무공 난중일기 및 임진장초 서간첩이 현충사에 있으며, 보물 제326호인 이충무공 유물 역시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사적지 제155호 이충무공 유허가 백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문화재 자료 제231호인 세심사 다층탑(산양리), 제311호인 홍가신 선생 교지가 사당(대동리)에 보존되어 있다.

8) 영인면

본래 아산군(牙山郡) 현내면(縣內面)의 지역으로 상불(上佛), 관대(官垓), 성대(星垓), 송충(松忠), 운정(雲井), 신중(新中), 동현(東峴), 신천(新川), 통산(通山), 상리(上里), 하리(下里), 선교(船橋), 월견(月見)의 14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북면(一北面)의 금성(金城), 도곡(道谷), 내동(內洞)의 3개 리와 이북면(二北面)의 구산(九山), 신언(新堰), 신성(新星), 백석포(白石浦), 철봉(鐵蜂), 백치(白峙), 신문(新門), 신대(新垓), 안화(安化), 여사(如思), 역동(驛洞), 와우(臥牛), 용동(龍洞), 용서(龍西), 창정(蒼亭)의 15개 리와 신흥면(新興面)의 신성리(新星里)를 병합하여 이 지역 남쪽에 있는 영인산의 이름을 따서 영인면이라 하여 아산군(牙山郡)에 편입되어 구성(九星), 백석포(白石浦), 상성(上星), 성내(城內), 신봉(新峰), 신운(新雲), 신현(新峴), 신화(新化), 아산(牙山), 역리(驛里), 와우(臥牛), 월선(月船), 창룡(蒼龍)의 13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3개의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로 나뉘어 있다. 인구는 7,700여 명이며, 총 2,400여 세대를 이루고 있다.

동쪽은 둔포면(屯浦面)과 음봉면(陰峰面), 남쪽은 음봉면(陰峰面) 염치읍(鹽峙邑), 서쪽은 인주면(仁州面) 북쪽은 바다를 건너 경기도(京畿道) 평택시(平澤市) 현덕면에 닿아 있다.

영인면의 몇 가지 현황을 더 알아본다.

가. 산지

1) 고용산(高涌山)

영인면 성내리, 신화리, 신봉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95.7m인데 초목은 없고 큰 돌만 많으며 산봉우리가 들 가운데 높이 솟아 있어서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병자호란 때 근처의 남녀들이 모두 이 산에 올라와서 피난하는데 적병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올라오는 것을 돌로 내리쳐서 완전히 물리쳤다고 한다. 선조 때 토정(土亭) 이지함(李之驪)이 아산 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구하였다. 하루는 심심하여 통인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와 통인을 시켜 여러 바위를 들어봄에 그 속에 금, 은이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을 본 통인은 욕심이 나 이토정을 죽이고 혼자 차지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토정이 가끔 생지네즙을 마시고 생울을 먹어 지네 독을 제하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이토정이 생지네즙을 마시자 생울 대신 버드나무를 생울같이 쳐서 드리자 이토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난 후 이 산에 와서 살펴본 즉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아전 중에서 아산 아전이 가장 천대를 받았다고 한다.

2) 금산(錦山)

영인면 아산리·성내리와 음봉면 신수리 어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85m이다. 돌로 쌓은

성이 100칸이 되며, 동으로 음봉면 삼거리에 이 충무공 산소가 있고, 서쪽으로 아산 구읍이 있으며, 북으로 영인면 성내리 내동이 있는데, 내동은 음봉현의 터라 하는데 지금도 그 때의 주추와 기와 조각이 남아 있다.

3) 신봉산(信鳳山)

영인면 월선리 달보기 서쪽에 있는 산으로 공세포 드나드는 뱃사람들이 뱃길을 떠날 때, 순풍을 빌어 제사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는 신봉사(信鳳祠)가 있다.

4) 영인산(靈仁山)

영인면, 염치읍, 인주면 어름에 있는 큰 산으로 높이는 363m이다. 산이 높아서 매우 험준하나 사람이 다녀도 전혀 다치지 아니하고, 또 꼭대기에 우물이 있어서 큰 가뭄이 있을 때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성이 남북으로 둘이 있는데, 북쪽 성은 돌로 쌓아 그 둘레가 480척, 높이 10척이 되며, 남쪽 성은 흙으로 쌓아 그 둘레가 480척, 높이가 4척으로 겹성으로 되어 있다. 고려 몽고 난리 때 평택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난하였다고 한다.

5) 원랑산(元浪山)

영인면 백석포리와 구성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07m이다. 광해군 때 선비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세상이 바로 잡힐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6) 학교산(鶴橋山)

영인면 아산리 학다리 뒤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아름답고 그 밑에 사대부가 많이 살기로 유명한데, 현재 영인초등학교의 소유가 되어서, 그야말로 학교산(學校山)이 되었다고 한다.

7) 백석산(白石山)

백석포 뒤에 있는 낮은 산으로 꼭대기에 흰 돌이 있으므로 백석산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8) 신랑봉(新郎峯)

벼두실 서북쪽 들 가운데 있는 외딴 산이다. 옛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우귀(于歸)하다가 도둑을 만나 신부가 항거하다 죽자 신운리 통미에 장사 지내고 신랑도 병이 들어 죽어서 이 산에 장사하였으므로, 이 산을 신랑봉이라 하고, 신운리 통미를 각시봉이라고 한다.

나. 고개

- 1) 사정이 고개 - 돛실에서 음봉면 사정리로 넘어가는 고개.(구성리)
- 2) 샫골고래 - 쇠재에서 음봉면 샫골로 넘어가는 고개.(구성리)
- 3) 요란고개 - 돛실과 쇠재에서 음봉면 요란으로 넘어가는 고개.(구성리)

- 4) 장골고개 - 뚝실에서 음봉면 사정리로 넘어가는 고개.(구성리)
- 5) 흰티 - 철봉에서 신화리의 여술로 가는 고개. 흙빛이 됨.(신봉리)
- 6) 뚝목고개 [뚝고개, 저항현, 안장고개, 마안현, 당고개] - 아산리에서 음봉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안장 또는 뚝의 목처럼 생겼다. 이 고개에 화상을 모신 신당이 있는데, 영험이 매우 있어서 고려 때 몽고군이 침입한 때에 몽고군도 성대히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주민들이 계속 기자(祈子)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아산리)
- 7) 머굴티 - 갈매지 남쪽에 있는 작은 고개. ① 큰 바위 둘이 마치 어금니처럼 생겼음. ② 큰 바위 등에 작은 바위가 얹혀서 애를 업은 것처럼 생겼다.(아산리)
- 8) 염티고개 - 아산리에서 염치읍으로 넘어 가는 큰 고개. 이 고개에 칼바위와 염치읍 서원리의 애기 업은 바위가 있다.(아산리)
- 9) 흐느재 - 아산리에서 염치읍 강정리 넘어 가는 험하고 큰 고개.(아산리)

다. 하천

- 1) 신언천(新堰川) - 영인면 신봉리 백터에서 발원하여 창룡리와 구성리의 신언리를 거쳐 백석포리에서 아산만으로 들어가는 내.
- 2) 주란내[주천, 아산천] - 영인면 성내리에서 발원하여 신운리로 흐르는 동쪽 내와 아산리에서 발원하여 상성리를 거쳐 신운리로 흐르는 남쪽 내가 서로 합하여 백석포리에서 아산만으로 들어가는데 그 두 내가 합한 곳을 이른다.

라. 기타(사원, 향교, 성지 등)

- 1) 미륵불(彌勒佛) - 신현리 168번지에 있는 미륵. 높이 2.5m, 넓이 1m.
- 2) 관음사(觀音寺) - 아산리 산 235번지에 있는 절. 5층탑, 7층탑이 있음.
- 3) 김옥균 묘(金玉均 墓) - 샘거리 뒷산에 있는 개화당 선구자 김옥균 묘.
- 4) 돌부처(石佛) - 오층탑 뒤에 있는 돌부처.
- 5) 아산향교(牙山鄉校) - 향교골에 있는 아산 향교. 전에는 객사 동쪽에 있었는데, 선조 10년(1577)에 토정 이지함이 이곳에 옮겼다.
- 6) 여민루 - 1415년 (태종 15)에 아산 현감 최안승(崔安昇)이 건립하여 회의장소로 사용하는 한편 아침, 저녁 대문을 열고 닫는 신호장소였다고 한다. 여민루라는 이름은 1714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홍만이 명명하였다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 건평 33m²의 2층 누각이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7) 오층탑(五層塔) - 관음사 앞에 있는 돌탑으로 높이 4m나 되는 5층의 탑인데, 고려 때 유물로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8) 충국순절비(忠國殉節碑) - 월선리에 있는 6.25 때 이규풍의 한 집안 다섯 사람이 공산당에게 학살된 것을 기념한 비.

9) 인주면

본래 아산군(牙山郡) 신흥면(新興面)의 지역으로서 걸매(傑梅), 하신원(下新元), 서강(西江), 신밀두(新密頭), 신성(新城)의 5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서면(一西面)의 관청(觀淸), 암사(岩寺), 아현(牙峴), 냉정(冷井), 밀두(密頭), 신성(新城)의 6개리와 이서면(二西面)의 금읍(金邑), 문지(文旨), 방축(方築)의 3개리와 삼서면(三西面)의 금곡(金谷), 성동(城洞), 도정(桃井), 신흥(新興), 해암(海岩), 신성(新城)의 5개리와 현내면(縣內面)의 동강(東江), 모원(牟元), 점리의 3개리와 전 천안군(天安郡) 돈의면(敦義面)의 응현(應峴), 대사동(大寺洞)의 2개리를 병합하여 아산군(牙山郡)의 고려(高麗) 때의 이름인 인주(仁州)의 이름을 따서 인주면이라 하여 관암(觀岩), 금성(金城), 냉정(冷井), 대음(大音), 도흥(桃興), 모원(牟元), 문방(文方), 밀두(密頭), 신성(新城), 해암(海岩), 걸매(傑梅), 공세(貢稅) 12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동쪽은 영인면(靈仁面)과 염치읍(鹽峙邑), 남쪽은 신창면(新昌面)과 선장면(仙掌面), 서쪽은 당진군(唐津郡), 북쪽은 바다를 건너 경기도(京畿道) 평택시(平澤市)에 닿아 있다.

인주면의 몇 가지 현황을 더 알아본다.

가. 산지

- 1) 갯바산 [입암산] - 공세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상봉의 바위가 갯 모양으로 되어 있다.
- 2) 두루봉 - 새터 옆에 있는 산으로 산 모양이 둥글고 소나무가 울창하여 백로가 많이 깃들여 있는데, 근래 사냥꾼들의 총소리를 피하여 없어졌다.
- 3) 당지산 [용두산] - 장수고개 남쪽에 있는 산으로 산제당이 있고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다 한다. 성 자리가 있으며, 말달리던 터가 있다.
- 4) 배산 - 기해 뒤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배와 같다 한다. 이 산에 형제술과 산제당이 있다.

나. 고개

- 1) 맹고개 [맹현] - 바위절에서 도흥리의 도도물로 넘어가는 고개
- 2) 응고개 - 불당골에서 문방리 응고개로 가는 고개

다. 평야

- 1) 곡교평야(曲橋平野) - 천안시 풍세면으로부터 아산시 배방면, 온양, 탕정면, 염치읍, 신창면, 인주면에 걸쳐 있는 넓은 들로서 곡교천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 2) 장완들(蔣琬들) [장완평] - 한뿌리 앞에 있는 들로소 장(蔣)씨의 발상지라 하며 또는 장씨의 시조 장완의 무덤이 있다 한다.

라. 기타(사원, 향교, 성지등)

- 1) 공세창성(貢稅倉城) [창성] - 공세리에 있는 공세창성으로 조선 때 아산(牙山), 서산, 하산, 연산, 임천, 정산, 공주, 홍주, 신창, 결성, 보령, 전의, 청양, 이산(尼山 : 魯城), 대흥,

석성, 해미, 태안, 천안, 비인, 은진, 목천, 면천, 연기, 덕산, 서천, 직산, 부여, 남포, 예산, 당진, 평택, 온양, 청주, 문의, 회덕, 진잠, 옥천, 회인 등 40 고을의 조세를 받아 쌓아 놓던 곳이다. 중종 18년(1523)에 창고 80칸을 지었는데, 고종 때 폐지되고, 현재 천주당을 비롯하여 민가가 들어섰고, 성벽은 동남쪽이 남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2) 지식범 자선비(池錫範慈善碑) - 불당골 금성 국민학교 옆에 있는 참봉 지식범(池錫範)의 자선비.
- 3) 열녀민씨 정문(烈女閔氏旌門) - 한갓골에 있는 홍우기(洪宇紀)의 아내 열녀 여주 민씨의 정문.
- 4) 형제솔 [형제송] - 배산에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로서 형솔 [兄松]의 높이는 11,09m이고 둘레는 3,70m이다. 아우솔 [弟松]의 높이는 10,02m이고, 둘레는 3,02m이다. 임진왜란 때 장수 형제가 적과 싸우다가 이곳에서 죽었는데, 그 혼이 변하여 이 소나무가 되어 이 고장을 수호한다고 한다.

10) 음봉면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덕지(德地), 동암(銅岩), 신흥(新興), 중리(中里), 재곡(재谷), 점촌(店村), 후천(後川), 소동(小東), 용혈(龍穴), 공수(公須), 울지(栗地), 사기(沙器), 사정(砂亭), 산소(山所), 삼거(三巨), 강정(江亭), 응암(鷹岩), 한적(閑寂), 송오(松塢), 신촌(新村), 수동(壽洞), 장곡(壯谷), 대정(大定), 신리(新里), 월랑(月朗), 장수(長水), 용평(龍坪), 신성(新星)의 16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이동면의 상룡, 하룡, 상암, 하암, 본산, 송암, 동리, 중리, 신흥, 구휴, 마근, 신청, 요로, 원남, 두미, 의식의 16개 리와 천안군 환성면의 공수리를 병합하여 이 지방에 있는 아산의 옛 이름인 음봉의 이름을 따라 음봉면이라 하여 덕지, 동암, 동천, 산정, 산동, 삼거, 쌍용, 쌍암, 소동, 신수, 신청, 신흥, 원남, 월랑, 의식, 송촌의 16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 34개 행정리로 나뉘어 있다.

동쪽은 천안시 직산면과 천안시, 남쪽은 탕정면과 엮치읍, 서쪽은 엮치읍과 영인면, 북쪽은 영인면과 둔포면에 닿아 있다.

음봉면의 몇 가지 현황을 더 알아보자.

1) 산지

- ① 연암산(燕岩山) : 음봉면 동암리·소동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92미터이다. 제비바위가 있으며 돌로 210간의 성을 쌓았고, 그 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어서 남쪽으로 천안시 태학산의 봉화를 받아 북쪽으로 직산 망해산 봉화에 응하여 있다.
- ② 월주산성(月柱山城) : 둔포면 봉재리와 음봉면 신청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돌로 쌓은 성 220칸이 있으며, 어리목 산정과 남북으로 마주서 있다.
- ③ 둔덕산(屯德山) : 음봉면 삼거리, 송촌리, 남원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23미터이다. 옛날 난리에 둔 쳤던 곳이라 한다.
- ④ 금산(錦山) : 영인면 아산리·성내리와 음봉면 신수리 어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85미터로 성재라고도 한다.

2) 하천

- ① 대동내(銅岩川) : 음봉면 수한성과 둔덕산에서 발원하여 동암리 대동을 거쳐 덕지리에서 월랑천과 울지내와 합하여 매곡천으로 들어가는 내.

3) 건축

- ① 정의재(淸義齋) : 1966년에 낙성한 청주이씨 재실로 음봉면 월랑리에 있다.
- ② 개안암(開安庵) :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연암산에 있다. 월랑초등학교에서 약 2킬로미터 거리의 산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로 통일신라 때 큰 절이 있었으나 조선시대로 들어와 화적들의 노략으로 모두 불태우고 자취만 남아 있다고 한다.
- ③ 승령각(崇靈閣) :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90번지에 있는 승령각은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왕의 영상을 모시고 있다. 매년 음력 3월 15일 군내에 거주하는 자손들이 대제를 지내고 있다.

11) 탕정면

본래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여사(如思), 갈산(葛山), 내금(內金), 외금(外金), 동산(銅山), 덕지(德地), 신평(新豐), 가소(可巢), 행승(行升), 명암(鳴岩), 구미동(九美洞), 내호(內虎), 외호(外虎), 신대(新垆), 성북(城北)의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이북면의 구령(九靈), 수청(水淸), 오류동(五柳洞), 권곡(權谷), 모종(毛宗), 신흥(新興), 소룡(小龍), 신리(新里), 용두(龍頭), 수현(水峴), 10개리와 아산군 원남면의 정좌(正座), 창덕(昌德), 산곡(山谷), 대중(大中) 일부의 4개 리를 병합하여 온양의 옛이름인 탕정을 따서 탕정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갈산, 구령, 권곡, 동산, 매곡(梅谷), 명암, 모종, 신리, 용두, 호산의 10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大統領令) 제 6542호에 의하여 모종 권곡의 2개 리를 떼어 온양읍에 넘겨주었으며 1983년 신리가 다시 온양읍에 넘어가고 1987년 구령리를 다시 배방면에 편입시킴으로써 현재 용두, 명암, 동산, 호산, 매곡, 갈산 등 6개리를 관장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6개의 법정리와 10개의 행정리로 되어 있다. 탕정면은 동쪽으로는 천안시, 남쪽으로는 배방면, 서쪽으로는 염치읍과 온양, 북쪽은 음봉면에 닿아 있다.

탕정면의 대표적인 산인 국사봉(國師峰)은 탕정면 동산리, 명암리와 음봉면 덕지리 어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55미터이다. 천덕산성(天德山城)은 탕정면 매곡리, 동산리 등에 걸쳐 있는 천덕산에 있는 돌로 쌓은 성으로 150칸이 있으며 그 모양이 상여(喪輿)와 같다 한다. 물한산(水漢山)은 음봉면 동천리와 탕정면 명암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84 미터이다. 둘레 1420척, 높이 10척인 돌로 쌓은 성이 있으며, 두어 길 되는 폭포가 있는데 그 물이 매우 차서 병을 고치므로 냉정(冷井)이라 하여 근처 사람들이 목욕하러 많이 다닌다. 옛적에 남매 장사가 있어서 성 쌓기 내기를 하여 남자는 물한성을 쌓고 여자는 피꼬리 성을 쌓았다고 한다.

탕정평야는 상류의 배방면 갈매리에서 탕정면을 거쳐 온양, 염치읍, 신창면, 인주면 일대에 발달된 평야이다.